

# 반려동물 산업 육성 잔걸음

## 지리산뽕사골 간판 새단장

남원시 4년연속 공모사업 선정... 총 1억2000만원 투입

남원시가 4년 연속 간판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이번 공모는 전국 4개 지자체만을 선정하는 공모인 만큼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정되어 더욱 의미가 크다. 특히 행정안전부와 한국육외광고센터의 최종심사에서 남원시 추진 의지가 크게 반영돼 4년 연속 선정의 좋은 결실을 거두게 됐다. 2018년에는 '행정안전부 좋은간판 나눔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지리산 뽕사골 일원 간판을 개선한다. 총사업비 1억2000만원(국비 7000만원, 시비 5000만원)을 투입해 산내면 뽕사골 일원 25개 업소 간판을 교체할 계획이다. 사업은 내년 3월부터 공사에 들어가 7월 완료할 예정이다. 우선 간판개선 방향은 지리산 뽕사골 입구에 늘어선 크고 화려한 간판을 가장 자연친화적인 간판디자인을 적용하여 새롭게 바꾼다는 방침이다. 한국육외광고센터의 지원을 받아 지리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잘 어울리도록 간판의 형태, 재료, 색채 등의 기준을 마련하고 시는 간판 제작과 설치를 맡는다. 간판디자인 기준안은 지역주민 등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 지리산 지역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주민들과 함께 지리산의 대표 관광 이미지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리산 뽕사골의 자연친화적인 간판은 탐방객에게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더불어 쾌적한 탐방환경을 제공하며, 지역상권 활성화에 더욱 도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남원=유영철 기자



임실시장 상인회는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전통시장 선진지 견학을 실시한 후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 임실시장 상인회, 고창서 한수 배우다

전통시장 선진지 견학 방문  
노하우 습득·상인간 화합

임실시장 상인회(회장 백기용)는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전통시장 선진지 견학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시장 상인회 회원 30여명은 골목형시장을 넘어 올해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선정된 고창 전통시장을 방문해 노하우를 습득했다. 시장 내 시설현황, 고객편의시설 이용관리 실태, 시장 먹거리장터 운영

현황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임실시장 발전방향과 상인 간 화합을 도모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또한 고창 전통시장 사업단장의 사업 설명을 청취 후 고창 전통시장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의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백기용 임실시장 상인회장은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시장 상인들의 자발적인 동참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성공적 사업 추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순창군, 자격증 취득반 등  
치유활동 가능 교육 추진  
전문가 포진 최고 수준



순창군농업기술센터가 12월 18일까지 매주 월요일 반려동물 자격증 취득반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순창군이 반려동물 인구 천만시대를 맞아 반려동물과의 올바른 관계형성과 반려동물을 매개로 한 치유 활동까지 가능한 교육을 추진해 인기를 끌고 있다.

순창군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반려동물 자격증 취득반 교육은 동물 매개심리상담사 2급과, 반려동물관리사자격증 두개 과정이다.

동물매개심리상담사는 반려 동물들을 통한 동물매개치료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활동의 수행을 감독하고 대상자의 변화를 평가하는 역할을 하며 자격증 취득 후에는 복지관, 보육시설, 병원, 장애인생활시설 등에서 일하게 된다.

이번 교육은 지난 10월 16일 첫 강좌를 시작했으며 12월 18일까지 매주 월요일 5시간동안 총 10회로 진행된다. 당초 예정인 25명을 넘어 29명의 수강생이 수강을 받고 있을 정도로 회가 갈수록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교육은 한국동물매개심리치료학회에서 강의 일정과 내용을 구성해 전문성이 높다. 한국동물매개심리치료학회는 원광대

학교 김옥진 교수 및 이시종 외래교수 등 국내 최고의 반려동물 전문가들이 포진하고 있는 최고 수준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ECO-AAA(Eco Animal Assisted Activity) 프로그램을 개 발해 치유농업에 적용하고 있는 등 반려동물교육에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 내용은 반려동물과의 교감을 통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를 겪고 있는 아이들이 반려동물을 통해 폭력성을 완화하고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들의 치매완화와 치매 예방을 위한 치료 기법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 반려동물의 생리와 영양관리, 반려동물 교감기법과 기본 훈련 등도 배울 수 있다. 강의를 수강하고 있는

순창군 쌍치면 황모씨(63)는 "반려동물의 치료효과가 ADHD뿐만 아니라 범죄예방까지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으며 친환경농업에 매진하고 있는 순창군에서 반려동물 먹이 생산 및 반려동물 용품 등 반려동물 산업에 좀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농업기술센터 이구연 소장은 "이번 반려동물 자격증 취득반 교육 결과를 토대로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반려동물들을 통해 폭력성을 완화하고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들의 치매완화와 치매 예방을 위한 치료 기법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군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여행 등을 통해 치유농장 육성 사업과도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 순창의 아들·딸, 미술대회 대거 입상

옥천골미술관 아카데미 수강생 9명 영예

제9회 전북 산하 전국청소년 미술대전에서 순창옥천골미술관 청소년, 영재아동 아카데미반 수강생 9명이 입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9일 순창군에 따르면 입상자는 고등부 3명, △최우수상 박지수(순창제일고3), △장려상 임대웅(순창제일고1), △입선 박효덕(순창제일고1)이며, 초등부 6명, △특선 경소희(순창중앙초4), △최현서(순창초1), △신주애(순창중앙초3), △입선 김다경(순창중앙초4), △이랑(순창적성초6), △주용대(순창초2)이다.

순창 옥천골미술관은 지난해 4월 개관과 동시에 청소년과 영재아동 미술 아카데미반, 한국화교실 등을 개설하여 그동안 100여명

에게 미술을 지도하고 있다. 수강생들은 미술공부는 물론이고 자신들의 소질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도심 속 담장 벽화그리기, 요양원 등 불우시설 환경 꾸리기, 장류축제장 조형물 설치 등 문화적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황숙주 군수는 그동안 순창에 미술관이 없어 미술을 배우고자 하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지난 해 4월 섬진강미술관과 옥천골미술관을 개관하면서 언제든지 미술품을 관람하고 미술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게 되어 다행스럽고 앞으로도 작지만 알찬 내용으로 미술관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 임실호국원, 남원중앙초 학생과 눈높이 나라사랑 체험행사 개최

국립임실호국원(원장 박종덕)은 9일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일'을 기념하기 위해 남원중앙초등학교 학생들 600여명과 함께 '나라사랑 체험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11월 11일의 의미 소개, 샌드아트를 통한 유엔참전용사 감사 내용 표현, 나라사랑 퀴즈 맞추기, 태극 바람개비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행사로 진행되었으며 학생들은 체험과 함께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 참여한 학교 관계자는 "학생들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으로 우리 아이들이 즐겨워하는 걸 보니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호국원이 지역사회를 위해 다채로운 행사를 자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하나** 백두대간 달리다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호랑이 라이더를 타고 백두대간의 자연을 흥미롭게 느낄 수 있는 코너

**둘** 백두대간 산간마을  
백두대간 7천여의 삶의 모습과 주요마을들의 모습들을 영상으로 담아 현대인들의 메마른 정서에 추억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코너

**셋** 노치와 밤이  
남원시 주천면 노치마을 당산제를 모티브로 노치소년과 백호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흥미롭게 묘사한 360도 서울영상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로 151  
남원시 산림과 백두생태 063-620-6944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063-620-5751  
백두대간생태교육장 트리하우스 063-620-5754

지역 매아리

남원시보건소-한의학 협력

한방 난임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남원시보건소와 남원시한의사회에서는 전통한의학 방법으로 난임을 치료해 자연임신의 가능성을 높이는 한방 난임 지원 사업 참여자를 연중 모집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민간 협력을 통해 출산 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의 일환으로 2014년부터 진행되었으며, 2017년에도 역시 큰 호응을 얻어 8명의 대상자를 선정하여 진행중이며 신청대상은 법적인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 부부 주된 등록상 관내 거주자이면서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44세 이하인자로 관내 지정 한의원에서 주2회 3개월 이상 지속적인 한약 복용과 침구치료가 가능한 자여야 하며, 모집인원은 선착순 7명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토~일 공휴일을 제외하고 난임 진단서 등을 지참해 보건소 2층 건강생활과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신청자가 작성한 설문조사서, 난임 진단서를 바탕으로 하며 신청일 10일 이내에 유선 또는 문자로 통보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하고, 앞으로도 저 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시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히고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 순창 구림면 연합소득 작목반

국제농업 박람회장 등 방문

순창군 구림면 연합소득 작목반원(회장 권상수)들은 최근 급변하는 농업 환경변화에 대응 하고 보다 많은 농가소득을 창출을 할 수 있는 대체작물 발굴을 위해 전남 해남군 밤 호박단지 와 나주 국제농업 박람회장을 다녀왔다.

구림면 연합소득 작목반 해남 밤 호박단지에서는 시설하우스 등을 둘러보고 밤 호박 시설재배 방법과 재배농가로부터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밤 호박 도입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또 나주국제 농업박람회는 새로운 농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선진농업의 교류의 장으로 친환경농산물의 재배 기술, 우수 축산물 육성 가공 방법 등을 몸소 체험하고 배우는 기회를 갖었다.

함께한 조태봉 구림면장은 "시설하우스가 많은 우리면 특성과 작기가 짧고(3개월) 경비가 낮고 고수익을 창출하는 밤 호박이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즉에서 새로운 대체작목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가져다 줄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